

청소년의 진로관심유형, 역기능적진로사고, 사회적지지 및 학업적자기효능감 관계

채희원

삼육대학교 스미스교양대학

Th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Career Concern Type,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Social Support, Academic Self-effectivity

Hee-Won Chae

Smith College, Sahmy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관념 측면인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분석을 통해 진로관심유형을 분석하고, 내·외적 진로상황에서 나타난 역기능적진로사고, 사회적지지, 학업적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1차 고등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주제분석을 진행하여 '합리적 관심과 비합리적 관심 •합리적 무관심과 비합리적 무관심'의 4개 유형을 구분화하고 내·외적 진로 상황 인 역기능적진로사고, 사회적지지, 학업적자기효능감의 중심 주제를 분석하였다. 2차적으로 445명을 대상으로 그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SPSS 21.0,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자료 적합성, 측정모형 적합성, 구조모형 검증, 변인 간의 관계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청소년의 역기능적진로사고, 진로관심, 학업적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은 절대적 합치수와 중분적합지수가 적합 기준을 충족시켰다. 둘째,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인지적 내적 상황에 따라 진로관심유형의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합리적 관심, 합리적 무관심, 비합리적 무관심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부(-)적인 직접 효과를 나타냈고 간접효과가 총 효과를 높였지만 비합리적 관심은 기각되었다. 셋째,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합리적 관심, 비합리적 관심유형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습상황에 대한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간접 효과로 나타나 총 효과를 높였지만 합리적 무관심, 비합리적 무관심 유형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진로관심에 대한 유형 및 진로에 대한 내·외적 변인을 밝히고, 진로관심유형, 내·외적 변인 간의 관계를 해석 할 수 있게 하여 진로관심 유형을 바탕으로 진로지도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진로지도정책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둔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concern', which is an aspect of the idea of the career path of adolescents. The purpose i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social support,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internal and external career situations. first, The four types of 'reasonable concern and irrational concern, reasonable unconcern and irrational unconcern' were distinguished. In addition, the central themes of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social support, and academic self-efficacy, which are internal and external career situations, are analyzed. Second, 445 people were surveyed and their relationship was verified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the first one was analyzed as appropriate as a path model that explains the relationship. Second, the impact of career concern types could be identified depending on the individual cognitive and internal circumstances of adolescents. The indirect effect increased the total effect, but the irrational interest was rejected. Thir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mediated a sense of academic self-efficacy as there were rational and irrational types of concern. but the types of rational unconcern and irrational unconcern were rejected. This study revealed internal and external variables on the types and careers of career concern of adolescents.

Keywords : Irrational Concern, Rational Indifference,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cademic Self-Efficacy, Soci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Hee-Won Chae(Sahmyook Univ.)

email: passionjob@syu.ac.kr

Received August 12, 2021

Accepted November 5, 2021

Revised September 23, 2021

Published November 30, 20

1. 서론

‘조기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에 대한 관심을 동기부여해야한다’는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범운영 되며 청소년들의 만족스러운 진로선택을 위해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와 상담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Super(1955)는 전 생애 발달 단계에서 자기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직업 세계에 대해 기본적 이해를 돕는 성장기(출생 ~ 13세), 미래에 대해 계획이 중요해 지는 진로발달 과업단계의 탐색기 등으로 구분 하였다[1]. 탐색기(12~24세)에 해당 하는 청소년기는 진로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방향을 설정하여 전공 선택 및 구체적인 직업분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탐색’하고 고민하는 단계이다. 황매향(2010)은 청소년기의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 특성 결과에서 자기 자신의 이해는 평균 보통 및 대체로 그렇다 사이로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직업 세계의 이해는 보통을 약간 넘기는 수준으로서 학년에 상관없이 낮은 점수를 보였고, 고등학교 2학년 들이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2]. 그러므로 진로결정의 개념이 아닌 ‘무엇에 대하여 이끌려지는’의 단계 인 ‘진로관심’의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함이 적합하다. 사전적 의미로 보았을 때에도, ‘결정’은 ‘행동과 태도를 분명하게 정함’이라는 행동의 관점으로 해석되고, ‘관심’은 ‘어떤 것에 대하여 마음의 이끌려지는으로 주의를 기울여하는 현상’으로 관념에 대하여 해석되어져, 의미상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에 주목하여 이질적 집단에 대하여 개념화하고, 하위 유형을 밝히고 있다. Savickas(2005)는 진로적응력에 대해 진로관심 진로통제, 그리고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으로 단계를 나누어 설명하며, ‘진로관심’은 자신의 대한 미래고민을 통해 미래가능성을 인식 및 준비하려는 미래의 지향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3]. 이는 직업적 관점에서의 과업 및 전환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특정시기에서 단계적 혹은 장기적인 차원으로 직업적 선택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계획성 및 시간조망, 기대감과 미래에 대한 인식 이다. ‘진로관심’이 부족할 경우에, ‘진로무관심’이 야기되어 미래에 대해 무계획과 비판적 태도를 가지게 되므로, 미래 조망 훈련 및 긍정적 사고와 태도 함양, 현실감각 함양과 계획수립 등의 대한 개입이 수반된다[4]. 진로관심의 반대성향의 무관심 현상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외적 상황, 즉 ‘학업’에 집중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로와 학업 중 선택해야만 하는 장벽을 가지고 있어서, ‘진로에 대한 관심이 없는 진로무관심자는 문제가 있다’가 아닌 즉 청소년 그 행동주체는 합리적(rational)이다 라고 가정하여 진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 원인이 있고, 더 나아가 진로관심이 자신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할 때에 비용이 편익 보다 더 클 경우 무관심해 지는 경향인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적용, 진로 관심의 유형 중 하나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진로관심을 시작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포괄적 원인에 대하여 진로관련 현상에 주목하였다. 진로관심 유형과 청소년들의 내적·외적 상황 특징 인 역기능적진로사고, 학업적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를 분석하고 관계를 분석하여, 진로지도 시에 상담 설계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1 진로관심

‘진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앞으로 나가는 길’이다. 개인이 자기개념을 표현하며, 진로선택을 하는 것이다. 현실의 환경을 반영하고 목표 구체화를 하는 과정이다[3]. Super의 이론을 기초로, Savickas는 진로적응력 하위요인으로서 1단계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으로 단계별 구분화했다. 1단계 진로관심은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미래가능성을 인식하며 준비·계획하려는 미래지향성을 말한다. 이는 직업에 대한 과제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특정 시기에 단계적 혹은 장기적 차원에서 직업선택의 필요성을 인식 하는 것으로서 미래 시간조망, 미래 인식, 계획성 그리고 기대감으로 연결된다. 즉, 진로관심은 개인에 대한 비전 및 진로포부를 과거·현재로 연결키므로서 현실적 미래관점을 가지게 하여, 어떻게 노력하면 미래의 성공으로 연결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진로관심의 부족은 진로무관심의 원인이 되어 미래에 대한 무계획 및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긍정적사고·태도와 미래에 대한 조망 훈련, 현실감각 함양 및 계획성에 대한 외부개입이 필요하다[4]. 진로관심의 다음 3단계인 진로통제는 자신의 진로를 구성하는 데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믿는 내적과정이다. 진로통제가 부족하면 진로미결정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이렇듯이 Savickas 직로적응력의 하위 요인인 진로관심과 진로통제 차원의 문제

로서 진로무관심과 진로미결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그러므로 효과적 생산적인 진로발달을 위해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맞는 진로관심과 진로결정이 구분화되어 연구되어야 한다.

2.1.1.1 비합리적 진로관심

Krumboltz(1991)는 진로선택을 위해 비합리적인 신념에 원인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부적합 된 자신의 관찰 및 다수의 관점에 대해 일반화하여 진로에 대한 선택과정을 방해한다고 하였다[5]. Ellis(1962)는 인간은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사고해야 한다고 믿고 행동한다고 했다[6]. 진로신화(career myths)는 사회적 맥락, 발달적 논점, 인지적 명확성을 포함해서 생활 중에 진로와 관련된 된 근거 없는 신념과 정보를 왜곡되게 해석 한다는 것이다[7].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보탐색 및 상담 등의 진로탐색노력을 하는 합리적 진로관심인 경우와는 다르게, 생활하면서 우연히 접한 진로정보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다른 정보를 차단하며 진로탐색을 중단한 경우를 말한다.

2.1.1.2 합리적 진로무관심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 RCT) 혹은 합리적 행동이론(rational action theory)으로 불린다[8]. 선택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 가운데서 원하는 합리적인 것을 고른다고 해석한다. 선택을 위해서는 얻는 것 혹은 잃는 것으로 양분된다. 즉,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다른것이 존재한다. 이것은 선택할 때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지는 편익 및 비용이다. 합리적 무관심은 완벽히 합리적일 수 없는 주체인 인간이,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기 위해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면 그 고려대상에서 무관심한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9]. 진로고민을 위해 발생되어지는 비용(물질적비용, 시간, 노력, 심리적 비용 등)이 편익과 비교하여 높은 비중으로 발생되어져 그 정보부터 합리적으로 무관심(rationally choose to be inattentive)하게 되어지는 진로무관심 경향성을 의미한다.

2.1.2 역기능적 진로사고

역기능적 사고는 우울과 무력감을 발생시킨다. 진로선택을 회피하고, 역기능적 인지는 내담자의 의사선택을 저해한다. 흥미와 가치발견을 어렵게 하여 진로준비활동

에 방해를 한다고 하였다[10].

Paterson(1992)은 역기능적 사고가 개인특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11], Saunders(2000)는 역기능적 사고는 진로미결정의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12].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의사결정력을 방해시키고 흥미발견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사고는 무력감, 확신 부족, 두려움, 죄책감의 정서를 야기시키고 내담자의 감정과 말 그리고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10]. 고등학생과 대학생 441명에게 진로사고검사를 실시하여 역기능적진로사고가 인지적으로 진로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밝혔다[13]. 또한 역기능적 신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혹은 완벽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게 되고, 높은 불안을 경험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에서도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높은 영향을 보임을 보고하고 있다[14]. 역기능적진로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하는 훈련을 통하여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질적으로 향상됨을 볼수 있었다. 또한 역기능적사고를 확인 후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인지적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노력하여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사고의 영향을 감소시켰다[15].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선택에 대한 실행을 저해한다는 가정을 지지하고 있다. 즉,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진로선택에 대한 유형과 밀접히 상관 있다고 보여진다 [16].

2.1.3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진로의 측면에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의 하나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환경의 통제감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정서발달 및 적응에 역할을 한다 [17]. 진로준비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정서적 및 심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먼저, 학교생활 안에서의 적응과 부적응과 관련하여 사회적 영향력에 대하여 들여다 보면 아동과 청소년에게 긍정영향력, 자기 가치에 대한 예측력, 인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로 긍정적 경험의 기회점을 제공하여, 대처전략을 증진시킨다. 불안 및 좌절의 상황을 극복하고 감정을 가다듬어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돕고 미래 자기 설계에 도움을 준다 [18]. 역기능적 사고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선영(201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내용이다[19].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도 뛰어난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의 적응도가 높고, '우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되었다. 또한 자녀의 진로준비행동에서 부모의 지지는 진로선택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청소년의 준비행동과 진로성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

2.1.4 학업적 자기효능감

Bandura(1993)는 다양한 처리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행동변화를 설명 및 예언하기 위해 인지적 관점 하나로서 자기효능감 이론을 강조하였다[22].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 안에서 발전·제한된 자기효능감 이론은 학업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태도를 능동적·자율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음을 내재적 동기와 관련지었다. 자기효능감이 학생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가질 수 있게 하여 해결이 가능했었던 것 보다 상위의 과제에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열정은 학업에 대하여 동기부여가 되고 학업 성취에 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개인 자신의 신념은 행동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잘 할 수 있냐고 인식 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수준이 달라진다[3]. 취업은 학업에 밀접히 상호관련성이 있다[23]. 학업은 진로와 취업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진로를 학업 문제와 별도로 다루기보다는 통합적인 방법을 통해 거시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진로관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 문제를 밀접하게 다루어 학업적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고향자(2015)도 진로선택과 준비가 진로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고, 반드시 학습역량을 고려하여야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15]. 지금 중·고등학교 의 환경은 학업성취도가 강조되어 경쟁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학업에 대한 실패경험은 자신감의 상실과 더불어 취업 문제까지. 선행연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도전적 과제를 선택하며, 과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인내심으로 학업과제를 진행한다.

2.2 연구방법

고등학교 1학년 201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설문지를 통해 ‘진로에 대한 관심 유무 및 이유’, ‘미래 진로에 대한 노력 정도’, ‘진로고민에 대한 대화 여부’, ‘자신의 내외적 상황’에 대한 자유의견을 서술 받았다. 진로에 관심이 없는 연구참여자는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중 대표적 특징을 보인 12명의 심

층면담 대상자를 선발하여 주제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된 진로관심유형 및 내·외적 상황에 대한 역기능적 진로 사고, 사회적지지, 학업적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2명의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2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설문에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균 30분~ 45분 정도의 시간으로 면담을 실시 하여 도출된 자료를 주제분석방법(thematic analysis)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 위해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사전 설명하고 이해를 도와 진행하였다.

Table 1. 12 person variable Description

Number	Gender	Career concern	job you want
A	Male	Yes	Gamer
B	Male	Yes	Actor
C	Male	Yes	Back-dancer
D	Male	Yes	Manager
E	Male	Yes	Rapper
F	Male	Yes	Professor
G	Male	No	-
H	Male	No	-
I	Male	No	-
J	Male	No	-
K	Male	No	-
L	Male	No	-

주제분석 과정은 수집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 안에 포함된 의미들을 발견하여 의미나 주제 추출하여 그것을 범주화한다. 의미나 주제단위로 진술을 통합하고 묶여진 각 의미 단위에 대하여 성찰하고 의미를 밝혔다. 각 의미 단위를 성찰하고 그 의미 혹은 주제에 대해 개념화를 하는 것이다[24]. 주제분석 과정에서 진로관심의 구성요인 54문항을 예비문항으로 추출하였고, 진로상담 전문가 12명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했다. 진로상담전문가는 3년 이상의 상담경력 가진, 현재에 진로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선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했다. 본 설문에 앞서 서울권 고등학교 200명을 사전조사(pre-test) 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및 요인분석 검증하였고, 의미 있는 24문항을 도출하여 최종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노원구 남자 고등학교와 여자 고등학교,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445부를 최종표본으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Table 2. Variable Description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231	51.9
	Female	214	48.1
Sum		445	100.0
Major	Humanities field	219	49.3
	Natural Science field	215	48.4
	etc	11	2.3
Sum		445	100.0
Grade	Upper	65	14.9
	Middle	258	59.0
	Lower	122	26.1
Sum		445	100.0

2.3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차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설문을 진행하고, 그중 대표적 특징을 보인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진로관심유형과 그 내·외적 상황에 대한 역기능적진로사고·사회적지지·학업에 대한 주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합리적관심의 특성은 정보 탐색, 진로 명확성, 노력, 상담, 열정의 주제어가 분석되었고, 내적 상황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열정, 학업중요성, 흥미, 대학 진학의 주제어가 외적 상황의 사회적 지지에서는 교사와의 대화, 부모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의 주제어가 분석되었다.

두 번째 유형인 A~E 면담자의 비합리적 관심에서는 막연한 확인, 진로에 대한 환상, 세부 정보 부족, 정보수집, 취미정도의 노력에 대한 의지 부족의 공통적 주제어가 분석되었다. 선택한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며 선택 직업 외의 직업에 대해서는 회피 경향성을 보였다.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고, 직업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의지 또한 부족했다.

2.3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차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설문을 진행하고, 그중 대표적 특징을 보인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진로관심유형과 그 내·외적 상황에 대한 역기능적진로사고·사회적지지·학업에 대한 주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합리적관심의 특성은 정보탐색, 진로 명확성, 노력, 상담, 열정의 주제어가 분석되었고, 내적 상황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열정, 학업중요성, 흥미, 대학 진학의 주제어가

외적 상황의 사회적 지지에서는 교사와의 대화, 부모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의 주제어가 분석되었다.

두 번째 유형인 A~E 면담자의 비합리적 관심에서는 막연한 확인, 진로에 대한 환상, 세부 정보 부족, 정보수집, 취미정도의 노력에 대한 의지 부족의 공통적 주제어가 분석되었다. 선택한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며 선택 직업 외의 직업에 대해서는 회피 경향성을 보였다.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고, 직업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의지 또한 부족했다.

게임을 하면 재미있어요. 게임하면 시간도 잘 가고... 게임이 재미있어서 하루 종일 게임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게임이 되고 싶어요. 게임이 되어서 TV에 나와 대항전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도 할 수도 없고 게임을 하면 부모님에게 혼나기 때문에 숨어서 혹은 혼자서 하고 있어요. 게임이 된다고 노력 하면 부모님에게 혼나요. <참여자 A>

잘생겼으니까 주위에서 한번 도전해보라는 이야기를 들곤 한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꼭 해 보고 싶다. 공유 배우를 좋아하는데 드라마를 잘 챙겨보고 있다. 연극영화과요? 아직 전공을 연기 쪽으로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연기학원은 돈도 들어가고...그래도 배우 되고 싶다. <참여자 B>

F참여자'는 타인의 영향을 받아 진로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경우로 '교수'직업을 가진 부모의 영향을 받아 '교수'가 되고 싶다는 막연하면서도 무조건적 관심을 보였다. 진로 탐색을 여러 방법으로 발전 시키기 보다는 나아가지 막연하게 부모의 영향을 받아 관심 만을 가지고 있을 뿐 노력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다. 다른 직업에 대한 탐색이 차단되어 있고, 구체적인 탐색과 실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가 물리학과 교수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교수 아빠가 될 수 있네요. (옆에서 성적이 되야지...) 교수가 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건 공부 말고 딱진 없는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건 음악이다. <참여자 F>

내적 상황에서는 모르겠음, 재미가 없음, 흥미 부족, 의사결정 혼란, 회피, 짜증, 학업 흥미 부족, 의지 결여의 주제어가 외적 상황에서는 부모와의 대화단절, 친구의 영향, 부모의 훈계 주제어가 분석되었다.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해 부모의 관심을 부담으로 느끼게 되고 대화단

절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현실에 직면하여 진로관심을 발전 시키기 보다 진로의사결정을 회피하는 행동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불신하는 타인과 부모의 모습을 통해 좌절, 회피, 흥미 저하의 진술을 보였다.

춤 잘 추는 것으로는 밥 못 먹고 산다고 하면서 이00이도 예전에는 유명했는데 지금은 돈 못 번다고 나쁜 이야기만 해요. 그렇게 성공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건 공부해서 중간 가는 게 편하고 가능성이 크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댜서 된다고 하면 완전 혼나요. 일단 이야기를 잘 안해요. 기분이 상하고 싸우는 걸로 마무리 되니까요.
하고는 싶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힘들 기도 할 것 같아요. 되는 방법은 일단 오디션? 참가하는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만 하시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C>

사람들 모였을 때나 식구들이 함께 있을 때 랩 해보라고 하시면서 랩 하면 좋다는 하세요. 주위 분들에게 칭찬도 해주세요. 그때는 기분이 좋죠. 근데, 엄마하고 이야기 하면 짜증나게 해요. 사람들 앞에 있을 때 하고 저하고만 있을 때는 틀려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요. 그냥. 하고 싶다는 거죠. <참여자 E>

세 번째 G~I참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 유형)에서는 학업에 대한 중요도 강조,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없음, 진로에 대한 시간투자 무의미, 시간이 없음, 대학진학, 타인의 영향, 집안환경으로 포기 주제가 분석되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학업', '대학진학'이고, 현재 상황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진로에 대해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학업에 열중하는 시간이 중요도가 높고, 진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함을 보였다.

어렸을 때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TV를 보면 변호사나 의사가 되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도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무조건 공부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고 나도 동의한다. 고등학교에 와서 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시간이 부족하다. <참여자 G>

학교에서 진로탐색 시간이 이다. 거의 다 아는 직업에 대한 거고. 듣기는 하는데 솔직히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쉬는 시간이고, 다른 친구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그 시간에 문제집을 푼다든지 다른 공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끝나고 나면 보충학습에 약간 자율학습에 또 학원을 가야하기 때문에 공부해서 일단 대학가서 전공결정하면 그때부터 생각해 볼 거다. <참여자 H>

내적 상황에서는 진로 탐색 의지 부족, 불안, 초조, 부담, 막연함, 모르겠음. 걱정, 기분 상함, 학업에 대한 중요도, 진학, 공부, 학원의 주제어가 외적 상황에서는 부모와의 대화 단절, 관심 부담, 교사와의 진로상담이 아닌 진학상담이 분석되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안으로 연결되는 진술을 하였지만, 현실에 대한 만족감은 높다고 진술하였다.

일단 미래에 대해서는 막연한 것 같아요. 전공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도 미정이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이 가장 원하는 거다. 대학 간 후에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대학가서도 똑같은 까요? 일단 대학진학이 가장 불안하고 부담스럽다. <참여자 G>

뭐가 되었든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다. 기분은 표현하자면 좋지는 않다.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는 다들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그냥 잘 모르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생각하라고 강요받는 기분이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짧은 시간 내에 대답을 하고 생각해 내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지금은 많이 바쁘다. 그렇다고 내가 제대로 못살고 있는게 아니니까 대학가서 생가가 할 거다. <참여자 I>

네 번째 K~L참여자(의 비합리적 무관심)는 모르겠음, 의지 부족,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음,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 시기가 늦었음의 주제가 분석되었다.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참여자로 성적이 낮으면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진로 탐색을 차단하고 있었다.

지금 제 성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공부하기도 싫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장사할래요. (하하하) 키자니아에서 라면공장, 소방관 해 본 적이 있다. 소방관이 되려면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들었다. 드림북 작성하는데 소방관 적었는데 공부 열심히 하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 <참여자 K>

저는 재미있는 것은 공부 말고 다인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다 재밌어요. 일단 공부를 잘 못하니까.. 오토바이 탈때가 가장 재밌었어요. 졸업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놀러가고 싶어요. <참여자 L>

내적 상황에서는 막연함, 모르겠음, 걱정, 기분 상함, 외로움, 학업에 대한 흥미 부족이 외적상황에서는 부모와의 대화 단절, 부모의 훈계가 주제어로 분석되었다.

훈이 나는데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죠. 당연히 안 좋죠. 좋은 사람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냥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기는 해요. 친구들과 함께 놀 때는 아무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학교는 그냥 나가야 하니까 나오고 있는 정도 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참여자 L>

본 연구는 12명의 심층면담을 통해 진술된 내용을 주제어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에 얻어 진 청소년들의 진로 관심 유형과 그들의 내·외적 상황인 역기능적 진로사고, 사회적 지지, 학업적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독립변인으로 진로관심유형을 종속변인으로 그리고 매개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와 학업적자기효능감을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 관심,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은 적합한가?

둘째, 청소년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관심유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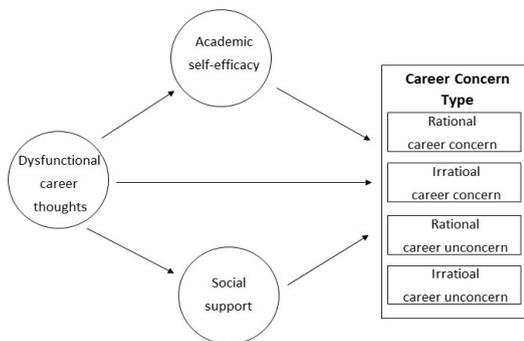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4 연구의 절차 및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관심 유형, 사회적지지, 학업적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1.0통계프로그램 빈도분석, 측정도구 검증과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8.0(Analysis of moment structural)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인 간의 영향력과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개념적 체계를 이용하여 변인 간 상호 작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계수 값을 추정하였다. 이들 변인 간 상호 간의 영향 관계를 직접적·간접적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절차를 요약하면 자료의 적합성 검증, 구조모형 검증, 변인 간의 관계 분석의 절차로 진행하였다.

2.5 측정도구

진로관심유형의 척도 구성은 주제어 분석을 통하여 얻어 진 청소년들의 진술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다. 50개의 설문 문항을 제작하고, 12명의 전문가를 통하여 검증하고 설문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문항을 삭제 및 추가하였다. 2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하여 요인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24개의 문항을 확정하여 600명에게 설문조사 하였다.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Sampson 등 (1996)에 의해 개발되어진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CTI)를 박미진, 이재창, 최인화가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수정 및 표준화 한 검사를 다시 보완 한 장선철 검사를 활용했다. 진로 문제 해결 및 진로 의사결정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진로관련 역기능적 사고를 측정가능하게 개발 한 것으로, 총 26문항 이다. 이 검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0점)' ~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할 수 있게 제작되었고, 다음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는 노튼(1994)의 학생 사회적지지 척도(Student Social Support Scale)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식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박인영과 김아영(2001)이 개발, 타당성을 검증받은 학업적자기효능감 검사를 사용했다. 자신의 학업 수행능력에 대하여 보이는 신념이나 기대의 정도를 측정 가능한 학업적자기효능감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된다.

사용된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측정하였고 구분이 명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진로관심 유형 등 각 세부 변수 별 Cronbach's α 계수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by Variable

Sort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Career Concern Type	Rational Career Concern	6	.786
	Irratioal Career Concern	4	.624
	Rational Career Unconcern	4	.766
	Irratioal Career Unconcern	9	.847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External Conflict	4	.896
	Performance Anxiety	9	.922
	Decision-making Confusion	13	.954
Social Support	Parental Support	8	.921
	Teacher Support	9	.941
	Friend Support	8	.921
Academic Self-efficacy	Preferring Task Difficulty	10	.790
	Self-regulatory Effectiveness	10	.876
	Confidence	8	.825

2.6 연구결과

2.6.1 경로모형 적합도

[연구가설 1] 청소년의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관심 유형, 사회적 지지, 학업적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은 적합 할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소년의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관심, 사회적 지지, 학업적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와 모수를 추정하였다. 구조 모형의 모수는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 비교 적합 지수(comparatice fit index; CFI), 절대 적합 지수(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값을 이용하였다.

2.6.1.1 진로관심 적합도 검증

진로관심 부분에 대한 모형 적합도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chi^2 = 5.784$, $df=2$, $p=0.55$ 로 나타나 적합 기준을 만족하였다. 절대 적합지수 RMSEA, GFI, AGFI와 충분적합지수인 TLI, CFI, NFI를 살펴보면, GFI, AGFI가 기준인 0.8을 넘는 .993, .948이었다. 절대 적합지수 RMSEA는 우수 적합도 수준인 .05을 넘는 .076의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모형이 전체적으로 매우 적합한 모형임을 뜻한다.

Table 4. Model Fits

Fit Index	χ^2	RMSEA	GFI	AGFI	TLI	CFI	NFI
Standard	$p > .05$	0.05 > : very good 0.05 - 0.08: good	.80 <	.80 <	.90 <	.90 <	.90 <
Model	5.784 (df=2, p=.055)	.076	.993	.948	.927	.985	.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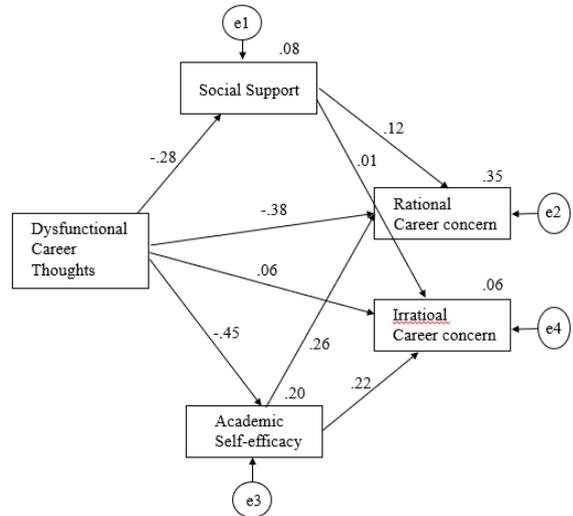


Fig. 2. Career concern Verification of hypothesis models

구조모형에 의 경로계수는 <Table 5>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잠재 변인 간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판단은 표준화 계수 부분의 C.R값으로 하였다. 경로의 유의성은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5. Career concern Path coefficient and Multi-correlation

Path	Non-standard factor	standard factor	S.E.	C.R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SocialSupport	-.242	-.281	.046	-5.288***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Academic Self-efficacy	-.352	-.448	.039	-9.037***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Rational Career Concern	-.381	-.380	.052	-7.376***
Academic Self-efficacy → Rational Career Concern	.336	.264	.064	5.296***
SocialSupport → Rational Career Concern	.145	.125	.054	2.684**
Dysfunctional Career Thought → Irratioal Career Concern	.075	.058	.081	.928
SocialSupport → Irratioal Career Concern	.012	.008	.085	.141
Academic Self-efficacy → Irratioal Career Concern	-.364	-.219	0.100	-3.653***

*p<.05, **p<.01, ***p<.001

잠재 변수들 간의 경로에서 유의한 경로들의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기능적 진로사고 → 사회적 지지’의 경로계수는 -.28(C.R=-5.288, p<0.001), ‘역기능적 진로사고 →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로계수는 -.448(C.R=-9.037, p<0.001), ‘역기능적진로사고 → 합리적관심’의 경로계수는 -.380(C.R=-7.376, p<0.001), ‘학업적자기효능감 → 합리적관심’의 경로계수는 .264 (C.R=5.296, p<0.001), ‘사회적지지 → 합리적관심’의 경로계수는 .125(C.R=2.684, p<0.01), ‘학업적자기효능감 → 비합리적관심’의 경로계수는 -.219(C.R=-3.653, p<0.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6.1.2 진로무관심 적합도 검증

진로무관심 부분에 대한 모형 적합도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chi^2 = 3.427$, $df=2$, $p=.180$ 로 나타나 적합 기준을 만족하였다. 절대적합지수 RMSEA, GFI, AGFI와 충분적합지수인 TLI,

CFI, NFI를 살펴보면, GFI, AGFI가 기준인 0.8을 넘는 .989, .914이었다. 절대 적합 지수 RMSEA는 우수 적합도 수준인 .05을 넘는 .078의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모형이 전체적으로 매우 적합한 모형임을 뜻 한다.

Table 6. Model Fits

Fit Index	χ^2	RMSEA	GFI	AGFI	TLI	CFI	NFI
Standard	$p > .05$	0.05 > : very good 0.05 - 0.08: good	.80 <	.80 <	.90 <	.90 <	.90 <
Model	3.427 (df=2, p=.180)	.078	.989	.914	.957	.991	.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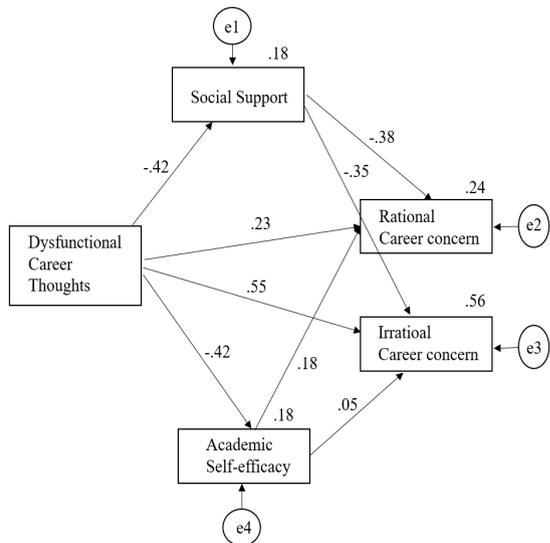


Fig. 3. Career unconcern Verification of hypothesis models

구조모형에 의 경로계수는 <Table 7>와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학업적자기효능감--->비합리적무관심’ 경로를 제외한 경로의 C.R.값이 유의하였다.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에서 유의한 경로들의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기능적진로사고 → 사회적지지’의 경로계수는 -.421(C.R=-5.022, p<0.001), ‘역기능적진로사고 →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로계수는 -.420(C.R=-5.000, p<0.001), ‘역기능적진로사고 → 합리적무관심’의 경로계수는 .23(C.R=2.388, p <.05),

‘역기능적진로사고→비합리적무관심’의 경로계수는 .548(C.R=7.450, $p<0.001$), ‘사회적지지→비합리적무관심’의 경로계수는 -.351(C.R=-5.173, $p<0.001$), ‘학업적자기효능감 → 합리적무관심’의 경로계수는 .182(C.R=7.450, $p<0.001$), ‘사회적지지 → 합리적무관심’의 경로계수는 -.351(C.R=2.057, $p<.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연구에 있어 개념 신뢰도는 0.6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 분산 값의 경우에는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은 구성개념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Career unconcern Path coefficient and Multi-correlation

Path	Non-standard factor	standard factor	S.E.	C.R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SocialSupport	-.419	-.421	.083	-5.022** *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Academic Self-efficacy	-.292	-.420	.058	-5.000** *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Rational Career unConcern	.332	.23	.139	2.388*
Academic Self-efficacy → Rational Career unConcern	.379	.182	.184	2.057*
SocialSupport → Rational Career unConcern	-.548	-.378	.129	-4.255** *
Dysfunctional Career Thought → Irratioal Career unConcern	.818	.548	.110	7.450***
SocialSupport → Irratioal Career unConcern	-.526	-.351	.102	-5.173** *
Academic Self-efficacy → Irratioal Career unConcern	.109	.051	.145	.753

* $p<.05$, ** $p<.01$, *** $p<.001$

2.6.2 경로분석

‘[연구가설 2] 청소년의 역기능적진로사고와 진로관심유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 효과를 가질 것이다.’ 검증을 위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6.2.1 진로관심 부분 경로분석

진로관심부분에 대한 효과분해결과는 <Table 8>과 같다. 부스트랩핑 방법을 사용하여 경로를 분해 해 본 결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에서 사회적지지(-0.281 , $p <.05$) 및 학업적자기효능감(-0.448 , $p <.05$)로 직접효과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서도 합리적관심($.264$, $p <.05$),(.125, $p <.05$)으로 직접효과가 유의미 하였다. 학업적자기효능감에서 비합리적 관심(-0.219 , $p <.05$)로 가는 직접효과는 유의미 하였지만, 사회적지지에서 비합리적 관심으로는 직접적 효과가 없었다.

Table 8. Career concern Mediated path coefficient Decompose effect

path	Direct	Indirect	Total	Result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Rational Career Concern	-.380*	-.153*	-.533*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Social Support	-.281*		-.281*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Academic Self-efficacy	-.448*		-.448*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Irratioal Career Concern	.058	.096*	.153*	
Academic Self-efficacy → Rational Career Concern	.264*		.264*	
Social Support → Rational Career Concern	.125*		.125*	
Social Support → Irratioal Career Concern	.008		.008	
Academic Self-efficacy → Irratioal Career Concern	-.219*		-.219*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Rational Career Concern				partial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Irratioal Career Concern				Totally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합리적 관심으로 가는 경로가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모두 유의미하였으므로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합리적 관심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을 검증 하였다.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비합리적 관심으로 가는 경로에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간접효과(.096, $p < .0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합리적 관심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학업적자기효능감에 부분 매개 하는 세부 경로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 Rational Career Concern, Sobel Test

Path	Indirect	Statistics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Rational Career Concern	-.153*	*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Social Support → Rational Career Concern	-.035	-2.392*	Adoption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Academic Self-efficacy → Rational Career Concern	-.118	-4.538***	Adoption

* $p < .05$, ** $p < .01$, *** $p < .001$

역기능적진로사고가 비합리적 관심에는 직접적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비합리적 관심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매개 하는 세부 경로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0>와 같다.

역기능적진로사고와 비합리적 관심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간접효과가 없어 기각되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량 3.376, 0.001수준에서 채택 되었다.

Table 10. Irratioal Career Concern, Sobel Test

Path	Indirect	Statistics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Irratioal Career Concern	.096*	*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Social Support → Irratioal Career Concern	-.002	-.141	Dismissal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Academic Self-efficacy → Irratioal Career Concern	.098	3.376***	Adoption
---	------	----------	----------

2.6.2.2 진로무관심 부분 경로분석

진로무관심부분에 대한 효과분해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부스트랩핑 방법을 사용하여 경로를 분해해 본 결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에서 사회적지지(-.421, $p < .05$) 및 학업적자기효능감(-.420, $p < .05$)로 가는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학업적자기효능감에서 합리적무관심(-.378, $p < .05$),(.182, $p < .05$)도 효과성이 유의미하였다. 사회적 지지에서 비합리적 무관심(-.351, $p < .05$)로 직접효과가 있었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비합리적 관심으로 가는 경로는 직접적 효과가 없었다.

Table 11. Career Unconcern Mediated path coefficient Decompose effect

path	Direct	Indirect	Total	Result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Rational Career Unconcern	.230*	.082	.312*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Social Support	-.421*		-.421*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Academic Self-efficacy	-.420*		-.420*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Irratioal Career Unconcern	.548*	.126*	.674*	
Academic Self-efficacy → Rational Career Unconcern	.182*		.182*	
Social Support → Rational Career Unconcern	-.378*		-.378*	
Social Support → Irratioal Career Unconcern	-.351*		-.351*	
Academic Self-efficacy → Irratioal Career Unconcern	.051		.051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Rational Career Unconcern				not effective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Irratioal Career Unconcern				Partial

* $p < .05$, ** $p < .01$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합리적 무관심으로 가는 경로에서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였지만, 간접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합리적 무관심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세부 경로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Table 12. Rational Career Unconcern Sobel Test

Path	Indirect	Statistics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Rational Career Unconcern	.082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Social Support → Rational Career Unconcern	.159	3.250**	Adoption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Academic Self-efficacy → Rational Career Unconcern	-.076	-1.906	Dismissal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합리적 무관심에는 직접적 효과가 유의미하였지만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합리적 무관심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가설]이 검증되었다. 학업적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는 기각되었다.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비합리적 무관심으로 가는 경로가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모두 유의미하였으므로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비합리적 무관심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학업적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같이 역기능적진로사고와 비합리적 무관심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여 [가설]이 검증되었다. 학업적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는 기각되었다.

Table 13. Irratioal Career Unconcern Sobel Test

Path	Indirect	Statistics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Irratioal Career Unconcern	.126	*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Social Support → Irratioal Career Unconcern	.148	3.607***	Adoption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 Academic Self-efficacy → Irratioal Career Unconcern	-.021	-.743	Dismissal
---	-------	-------	-----------

3.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탐색기(12~24세)의 청소년이 진로에 대한 관념 측면인 '진로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분석을 통하여 선행연구하여 진로관심유형을 분석하고, 그들의 내·외적 진로상황에서 나타난 역기능적진로사고, 사회적지지, 학업적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분석을 통해 진로관심 유형을 합리적 관심, 비합리적 관심, 합리적 무관심, 비합리적 무관심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그 중 비합리적 관심과 합리적 무관심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비합리적 관심 유형은 게임어, 백댄서 등의 직업을 희망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진로 관심은 있지만 막연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만을 할 뿐 실제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와 직업의 진로환상을 갖고 그 이외의 직업에 대해 회피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유형이었다. 매스컴에 혹은 또래 집단 간의 주제에서 직업에 대한 관심을 시작 한 유형으로 진로에 대한 관심을 시작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지는 유형이다. 비합리적 관심 유형이 합리적 관심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준비과정, 근무 환경, 급여 등 세부 직업 정보를 제공 하여 진로 관심이 진로 결정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다.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진로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김정화(2014)의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 이다[25]. 합리적무관심은 청소년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학업'으로 큰 비중을 두고, 진로고민을 위하여 발생 되어지 비용(노력, 시간, 심리적 비용 등)이 발생 되어 비용과 비교하여 편익이 낮기 때문에 그 정보로부터 합리적으로 무관심해지는 (rationally choose to be inattentive)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진로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가 아닌 청소년들, 즉 그 행동주체들은 합리적(rational)이라고 가정하여 진로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원인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과열 되어진 대학 진학으로 인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이 반영된 전공 선택이기 보다는 대학의 인지도가 중요시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실이 반영된 유형이다[26]. '진로에

무관심 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진학제도에 대한 개선, 그리고 진학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조기진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개인 인지적 내적상항인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관심유형의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심층면담을 통한 주제분석에서도 관심유형 중 무관심 경향성을 보이는 비합리적 관심, 합리적 무관심, 비합리적 관심 유형들의 진로에 대한 내적 상황은 불안, 의사결정 혼란 및 회피, 흥미저하, 좌절 등의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가지는 공통적 특징을 분석 할 수 있었다. 모형분석결과에서도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합리적 관심에 부(-)영향을, 비합리적 관심, 합리적 무관심, 비합리적 무관심에는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되어진 주제분석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측면임을 밝힌 이재창 외(2012)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15].

셋째,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합리적 관심, 합리적 무관심, 비합리적 무관심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합리적 관심은 기각 되었다.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합리적 관심의 부(-)적인 직접 효과를 나타냈고 간접효과가 총 효과를 높였다. 진로와 관련한 부모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에서 부모의 지지는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취업준비행동을 높인다는 박미진 외(2015)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27]. 반면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합리적 무관심, 비합리적 무관심의 관계에서는 정(+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고 간접효과가 총 효과를 높이며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주제분석 연구에서 보인 결과와 같이, 진로무관심 유형들은 불안·의사결정 혼란·회피 등 역기능적진로사고를 나타냈다. 부모의 지지를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잔소리 등의 부담감으로 생각하여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의사결정 회피한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부모지지는 진로의 선택에 있어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취업준비행동을 높인다는 것으로 보고 되어진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과이지만 진로관심 유형별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 되어진 진로지도가 운영되어 함을 시사한다. 의미 있는 영향력을 전달하는 부모들의 사고가 진로관심 보다는 진학 중심의 관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당사자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무시되고 의사 없는 진학으로 연결 되어지는 현실이 진로지도 시 반영 됨을 또한 시사한다. 부모의 지

지를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담·기대로 느끼게 되고, 이 상황은 부모와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진로관심을 유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분석결과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각 유형에 직접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의 진로지도와 병행하여 청소년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에 대한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넷째,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합리적 관심, 비합리적 관심의 관계에서 학업적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합리적 무관심, 비합리적 무관심은 기각 되었다. 취업과 진로는 학업주제와 상호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28]와 진로선택 준비가 진로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으며, 반드시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도움을 줘야 한다[29]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학업적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상황에서 과제의 수행을 위해 행위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 판단으로 진로의 문제에 있어도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보에 대한 왜곡, 근거 없는 믿음으로 자신의 진로관심 분야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진로탐색을 중단 한 경우로 학습상황에 대한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간접 효과로 나타나 총 효과를 높였다. 직업에 대한 직무내용 및 환경 등 세부적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진로선택에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탐색기(12~24세)에 해당 하는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시 진로관심유형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진로지도가 운영되어 져야 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진로지도에 있어서 진로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그들을 위한 진로지도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지지만, 연구의 한계와 추후과제도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중학교 · 고등학교 ·대학교, 지역별, 성별 대상의 특성에 따른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Super, Vocational development : A Framework for research New york :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 Press, pp. 52-58, 1955
- [2] M. H. Hwang(2010),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Career Development by the Age of Korean Youth, Asian Education Research, 11(4).

- 75-94, 2010.
DOI: <https://doi.org/10.15753/aje.2010.11.4.004>
- [3] Savickas, Modelin and attributional effects on children's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ical*, 73, 93-105, 2005.
- [4] N. Y. Shin, Structural Relationship of Career Adaptation and Leadership,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ectiveness of College Students,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Industry Education*, 48(3), 55-81, 2016. DOI: <https://doi.org/10.23840/afehrd.2016.48.3.107>
- [5] Krumboltz,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n Books Kaplan, B. H., Cassel, J. C., & Gore, S.(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5), 47-58, 1991.
- [6] Ellis, Cognitive career assessment: Concept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1-20, 1962.
- [7] B.S.Kim, Occupational psychology. seoul : Sigmappress. 2007.
- [8] Green & Fox, Differences in career attitude and career knowledge for high school students with and without paid work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3(1), 21 - 33, 2007.
- [9] Sims, Goal setting and self-efficacy during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y*, 25(1), 71-86, 2003.
- [10] Yost, Models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New Your: Springer, 1989.
- [11] P. F. Choosing a Vo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1992.
- [12] D. E. Saunders, Improving your career thoughts: A workbook for the Career Thoughts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2000.
- [13] M. J. Park, Effects of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on career decisions, *Journal of Psychology Korea: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2), 401-414, 2002.
- [14] Y. G. Joe, Do Changes in Dysfunctional Beliefs Predict Improvements in Social Anxiety Symptoms Following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Korean Association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vol.20, no.2, pp. 115~134, 2020.
DOI: <https://doi.org/10.33703/cbtk.2020.20.2.115>
- [15] H. J. Go, The Analysis of Decision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Consultation. Ph.D. thesis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5.
- [16] M. J. Cho, Effects of Parents' Perception of Economic Support on University Students' Disfunctional Career Accidents, Master's thesi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4.
- [17] H. J. Cho,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Subjective Health of Marital Immigrants on Social Support and Controlling Subjective Social Status, *Digital Convergence Research*, 2017.
- [18] Y. J. Jeon, S. Y. .Park,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Analysis of Training Program for Core Teachers of Elementary SW Educ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ol.23, no.3, pp. 31-40, 2020. DOI: <https://doi.org/10.32431/kace.2020.23.3.004>
- [19] S. Y. Lee, J. Y. Song, TThe effect of stress on depression,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ts using community child care center: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31, no.1, pp.21~43, 2019.
DOI: <https://doi.org/10.17927/tkiems.2019.31.1.21>
- [20] S. R. Kim. The Effect of Adolescence and Indecision on the Decision Types and Levels of Career in Adoles, *Journal of Psychology Korea: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3), 633-650, 2005.
- [21] H. J. Kang, Explor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chool-life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 vol.31, no.1, pp.43-62, 2018.
DOI: <https://doi.org/10.32341/JCER.2018.03.1.43>
- [22] Bandura, Perceived self-d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 117-148, 1993.
- [23] A. Y. Kim, Self-efficacy and motivation for learning, *A Study on the Method of Education*, 16(1), 1-38, 2004.
- [24] Y. C. Kim,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I. 2013
- [25] J. Y. Kim, M. A. Cho, The Case Study about the Effectiveness of Career Preparation Enhancing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Awaren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High School 1st Year Students, 5(1), 57-78, 2020.
DOI: <https://doi.org/10.15703/kicccsp.5.1.202006.57>
- [26] J.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ss of Career Determin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with Cluster Types and Career Disabilities. *Journal of Psychology Kore*, 9(2), 417-442, 2012.
DOI: <https://doi.org/10.16983/kjisp.2012.9.2.417>
- [27] M. H. Do, M. A. Han, Development of coaching competency scale for parents in childhood, *Coaching Research* 13(5), pp. 53-78, 2020.
- [28] J. H. Lee, M. J. Park, S. R. Kim, The Effect of Youth Optimism and Indecision on the Type and Level of Career. *Journal of Psychology Korea: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3), pp. 633-650, 2005.
- [29] H. R. Lee, W. Y. Choi,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Career Decis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8), pp. 819-849, 2020.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0.20.8.819>

채 희 원(Hee-Won Chae)

[정회원]



- 2007년 2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직업학석사)
- 2018년 2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직업학박사)
- 2018년 4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스미스교양대학 교수

〈관심분야〉

직업심리, 직업정보, 직업기초능력, 노동경제